

# 겨울 혈액 가뭄, 올해 더 심각하다

### 불황에 직장인 심리 '꽁꽁' 단체 헌혈 뚝 광주·전남 병원들 혈액 부족에 '발동동'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는 등 최악의 불황이 현실화되자 마음의 여유를 잃은 직장인들이 늘면서 헌혈도 크게 줄고 있다.

겨울철 혈액 가뭄은 연례행사라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기업회출, 구조조정, 유·무급 휴가 등이 추진되면서 직장인들의 심리가 공포 얼어붙어 헌혈 감소를 넘어 혈액 부족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혈용 혈액인

적혈구 농축액(PCR)은 113유니트(1 unit는 320~400cc)로 안정적인 수혈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적정재고량인 2천296유니트의 5.1%에 그치고 있다.

혈액이 항상 부족한 동절기에도 평균적으로 적정재고량의 10~20%를 보유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올 혈액 부족은 이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달에 설날 연휴가 끼인 상태여서 혈액 부족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연말부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기업들의 단체 헌혈이 완전히 사라져 혈액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들어 단체 헌혈은 31사단과 광주 석산고 등 2곳에 불과하며 기업의 단체 헌혈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해 일평균 헌혈량은 400~500유니트였으나 올 들어서는 200~250유니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혈액 확보를 위해 최근 이를 동안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400유니트의 혈액을 지원 받은 상태이며,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을 분량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혈액원의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일선 병원의 보유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과다 출혈 환자가 발생할 경우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병원이나 혈액원 모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기업에 단체 헌혈 모집을 위해 방문했다가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 등에 따른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동참하는 여유는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파트 담장에 무등산 담았어요” 9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모아·제일아파트 담장에 자기 타일로 무등산을 형상화한 벽화(길이 70m, 폭 4.5~5.5m)가 설치됐다. 이 벽화는 방개작 작가의 '미원의 무등'으로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무등산의 이미지를 형상화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미네르바’ 영장 ... 정치권·네티즌 시끌

### 과잉 법적용 논란 확산 진위 여부 열띤 공방도

검찰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정치권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과잉 법적용 여부 및 진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0)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드러난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이버모욕죄 등 여론이 추진중인 언론관계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네티즌은 '미네르바'의 진위 및 과잉 법적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제2의 미네르바는 없다'는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동안 '미네르바'가 올린 글과 정황 등을 분석하며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특히 '미네르바'의 글에 나타난 경제학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박씨는 그동안의 여론과는 달리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데다 전문대를 졸업한 무직 청년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박씨는 이날 자신이 실제 '미네르바'가 맞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당시 공익을 해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서류 조작 물 부담금 부정 수급 현직 공무원 46명 적발

### 보성경찰 수사 확대

수변공원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서류조작을 통해 몰래 타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보성경찰은 9일 주암호 수변공원 주민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국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보성군 모면사무소 김모(44·지방 6급)씨 등 공무원 2명과 브로커 박모(38)씨 등 3명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문모(54)씨 등 면장 2명을 포함, 보성군청 6~9급 공무원 37명과 우체국·교육청·소방서 소속 공

무원 9명 등 현직 공무원 46명과 마을 이장인 임모(54)씨 등 지원금 특별조사위원 3명 등 모두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보성군 읍내면 문양리 논 350㎡를 땅 소유자인 전모씨로부터 310만원에 구입했으며 해당 토지를 1989년 9월에 구입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와 보증서를 조작해 지난해 7월 군청으로부터 7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땅을 구입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점을 노려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전성근기자 sun@



## ‘오락실 뒤통’ 간부 경찰 압수 수색

검찰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상윤)는 9일 광주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의 사무실과 화정지구대 등 지구대 2곳을 수색하고 사건 서류와 소지품,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지난 8일 구속된 경찰관들의 현 근무처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여파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이 다른 업주나 경찰관들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

에 따라 연루 경찰관의 수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루된 다른 경찰관이 있어서라기보다 일단 구속된 경찰관들의 여파를 조사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8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1천만~4천600만원씩 받은 혐의로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김모(50) 경감과 농성지구대장 정모(38) 경감, 화정지구대 채모(38) 경위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사원구속 영장이 청구된 변모(37) 경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여수·광양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여수와 광양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일부 운송사의 운반비 인하 움직임에 반발해 운송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여수노동청과 여수산단 등에 따르면 여수와 광양의 화물연대 조합원 400여명은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운반비 인하 움직임에 반발해 화물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산업단지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운송 거부 방침을 어기는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번 운송거부는 지난해 여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유가연동제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하기로 한 합의에 의해 일부 운송사가 유가 급락분을 운반비에 반영하려는데 대한 반발심리에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측은 또 유가가 떨어졌지만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고 있어 운송비 인하 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흥기자 golee@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다 좋은 건국 선유제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차량 및 상품판매**  
▶서해본사 : 021-3445-0943  
▶나주본점 : 061-337-0571

### 광주·전남 중등교원 2차 합격자 발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9일 2009 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2차 합격자 536명을 발표했다.

광주는 공립에서 25개 과목에 197명, 위탁 시험을 치른 사립에서 12명 등 209명이며 전남은 25개 과목에 327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는 전남공고 등 4개 학교에서, 전남은 담양공고와 전남체육중 등 3개 학교에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등 3차 실기를 치르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5일 발표된다.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 코레일 설 병합 승차권 판매

코레일은 설 연휴기간(23~28일)에 운행되는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병합승차권과 KTX 영하객실 승차권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철도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병합승차권은 KTX나 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은 좌석으로, 나머지 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하는 승차권으로 코레일은 열차표를 미리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병합승차권을 추가 판매하기로 했다.

철도고객센터(1544-7788, 8545,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중흥기자 golee@kwangju.co.kr

### 이번엔 참깨 - 전과 27범 또 덜미

○대낮에 농산물 창고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전과 27범의 60대 남성이 참고 주인에게 덜미가 잡혀 또다시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은 9일 전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김모(54·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의 농산물 창고에 들어가 참깨를 훔친 박모(60·광주시 동구 산수동)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의 농산물 창고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고로 잠겨있는 문을 열고 참깨 90kg(시가 50만원 상당)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싣는 도중에 주인 김씨에게 불합격 경찰에 인계.

○경찰은 “박씨가 절도 등 전과 27범으로 드러나 상습성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쓴웃음.

/김정호기자 k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9분 달돋이 16시 31분 달질 06시 46분

**흰 눈이 '평평'**  
흐리고 눈이 뒤늦게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한때 눈	-4/1C
목포	흐리고 눈	-3/0C
여수	맑음	-3/2C
안동	흐리고 눈	-1/2C
구례	구름맑고 눈	-5/0C
해남	흐리고 눈	-3/2C
장흥	흐리고 눈	-3/2C
곡성	맑음	-3/3C
순천	맑음	-4/1C
영광	흐리고 눈	-6/-1C
진도	흐리고 눈	-1/2C
전주	구름맑고 눈	-7/-1C
남원	구름맑고 눈	-9/0C
속산도	흐리고 눈	-1/1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목포 06:43	06:15
연안 앞바다	북서~북	3.0~4.0m	목포 13:45	19: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여수 08:40	01:59
연안 앞바다	북서~북	2.0~4.0m	여수 20:44	14:4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5/3	-5/1	-4/3	-4/4	-4/4	-3/5

## 광주·전남 주말 큰 눈 온다

### 낮기는 영하 강추위

주말인 10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낮 기온이 영하권으로 푹 떨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0일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눈이 온 후 낮부터 점차 개겠고, 여수 등 동부 남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영광·함평 등 서해안 지방은 10일 새벽부터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다. 예상 적설량은 영광·함평 등 서해

안 지방은 3~10cm, 그 이외의 지역은 1~4cm,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영상 3도로 전날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휴일인 11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비나 눈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날 광주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시작된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인 15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호기자 kh@kwangju.co.kr

### 본사 김형국 부장 별세

광주일보 김형국(48) 광고마케팅국 부장이 9일 새벽 6시 급환으로 별세했다.

김 부장은 지난 87년 광주일보 공무원 사원으로 입사해 편집국과 업무국, 판매국, 광고국, 기획사입본부 등

에서 근무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현진(44)씨와 사 이에 수현(14)·현지(12)양과 병인(5)군을 두고 있다. 발인은 11일 광주 기독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671-9174



### 광주 떡 품평회

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디자인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년도 떡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시제품 품평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떡을 맛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지역 떡 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가 마련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